

일본의 문학 교육의 현상과 과제

시마네대학 교수 아다찌 에쓰오
옮긴이 천두현(동의대 국문과 명예교수)

첫머리에

한국어문교육학회의 20주년 대회에 초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교육연구자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의 문학교육의 현상(現狀)에 관하여 대표적인 문학교재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상력의 교육—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힘

먼저 일본의 문학교육의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어 말해 보고자 합니다.

*

일본의 문학교육에 있어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가네꼬 미수주(金子みづ)라는 여류 시인입니다(대정[大正]시대의 시인입니다)라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시는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풍어(豊漁) 가네꼬 미수주

아침놀 가실 녀

풍어다

대짜 정어리의

풍어다.

갯가는

축제인 모양이지만
바다 속에선
몇 만의
정어리의 장례식을
하겠지.

‘풍어’라는 시입니다. 어촌의 갯가는 정어리의 풍어로 들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자는 풍어로 들끓는 갯가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다 속의 정어리들의 일을 슬픈 마음으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바다 속에는 어부의 그물에 걸린 정어리의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잡혀서 끌려간 수만 마리의 정어리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겠지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인은 눈에 보이는 갯가의 풍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장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 아닌) 남을 사려하는 정다운 상상력(이미지네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나 아닌) 남에게 대한 정다운 상상력입니다.

*

한국의 마스크에서도 보도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일본의 교육에서는 현재 어린이들 사이에 ‘이지메’(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헤코지하는 일)라는 것이 큰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성도 본격적으로 ‘이지메’ 문제의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 현상(現象)에 대해서 일본의 문학교육이 쇠약해진 때문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풍어’와 같은 훌륭한 문학에 의해서 똑바로 ‘(나 아닌)남을 사려하는 상상력’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일본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고도 성장의 경제적 발전을 하고 국민생활은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학교교육은 가지각색의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족이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유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일본의 어린이들은 풍족한 물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 속까지 느긋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지메’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마음이 가난한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現狀)을 볼 때 국어과에서 '인간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 문학의 수업 1—미(美)와 진실의 교육

여기서 '인간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대표적인 실천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국을 감춘 눈(雪)'(기노시다 준지 木下順二)이라는 민화(民話)가 있습니다.

1

'자국을 감춘 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의 추운 밤에 피로해서 지친 한 사람의 나그네가 찾아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하룻밤 묵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너무나 가난하여 아무런 대접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웃집의 무우를 한 개 훔쳐와서 '무우구이'를 하여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아주 추운 밤에 게다가 몹시 배가 고팠으므로 나그네는 아주 맛있게 먹고 농부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깥의 눈 위에는 무우를 훔칠 때의 농부의 '발자국'이 남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이웃집 사람에게 들키면 큰일입니다. 단 한 개라 할지라도 남의 집 무우를 훔쳤으니 가혹한 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

이 이야기의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발자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날 밤 사락사락 눈이 내려 농부가 무우를 훔쳐 올때 생긴 발자국은 농부의 발걸음을 뒤따라 가듯이 쭉 죄다 사라져 버렸다고.

무우를 훔친 농부의 발자국은 '눈'으로 지워졌습니다. 눈으로 말미암아 농부의 도적질은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은 '눈'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농부의 '발자국'을 지우기 위하여 내린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교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일본사람의 자연관이 잘 나타나 있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자국을 감춘 눈'의 유명한 실천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사는 먼저 농부의 '도둑질'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농부의 '도둑질'은 좋은가 나쁜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린이들의 의견도 들로 같았습니다. '좋다'고 하는 어린이와 '나쁘다'고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의견은 도둑질은 나쁜 일이지마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곤경에 있는 나그네를 위한 행위이므로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쁘다'고 하는 의견을 아무리 곤경에 처한 나그네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도둑질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의견의 대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농부의 '도둑질'은 아름다운가 추한가?

어린이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이 '농부의 <도둑질>은 아름답다'는 의견이 된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에서는 결정을 망설이던 어린이들이 '아름다운가 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행위다'로 그 결론이 일치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는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결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가' '나쁜가'는 도덕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하여 '아름다운가 추한가'는 미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어린이들은 무우를 훔친 농부의 '(깊은)생각'을 상상함으로써 '아름다운 행위'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나 아닌)남의 처지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상력(이매지네이션)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나는 이 실천을 아주 훌륭한 문학교육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생님들께서는 이 실천을 어떻게 평가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자국을 감춘 눈’은 일본 민화(民話)의 대표적인 교재입니다. 일본의 국어 교과서는 현대의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민화교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에는 현재 외국의 민화도 실리게 하고 있습니다. ‘큰 그루’ (러시아 민화) ‘수호의 현말’ (몽골 민화) ‘삼년 고개’ (한국 민화) 등입니다. ‘이문화(異文化)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입니다. 문학교재의 국제화는 일본의 문학 교재의 한 특징입니다.

3. ‘곤 여우’ — 비극의 의미를 생각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대표적 문학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곤 여우’ (니이미 난끼찌 新美南吉)라는 작품입니다. 일본의 소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교재입니다. 일본의 어린이들은 4학년 때 이 작품과 만납니다.

1

‘곤 여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곤 여우’는 ‘곤(權)’이라는 작은 여우의 이야기입니다. 곤은 숲속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습니다. ‘외톨박이의 작은 여우’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장난만 치고 있습니다. ‘곤’은 ‘외톨박이’에 ‘장난꾸러기’의 귀여운 작은 여우입니다.

한편 마을에는 ‘효쥬 孝十’라는 사람됨이 좋은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곤은 어느 때와 같이 장난을 하기 위하여 마을에 가니 효쥬가 내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곤은 가만히 다가가서 효쥬가 없는 틈을 타서 효쥬가 잡은 고기를 물속에 던져 놓아 버립니다. 뱀장어는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뱀장어는 귀중한 물고기입니다. 곤은 ‘장난’을 칠수 있었으므로 대 만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뱀장어’ 때문에 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참 지나서 곤이 마을에 가보니까 효쥬의 집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효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곤은 그날 밤 자기의 굴속에서 곱씹히 생각에 잠깁니다.

‘효쥬의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리곤 뱀장어가 먹고 싶어 뱀장어

가 먹고 싶어 하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장난삼아 훔친 ‘뱀장어’와 ‘효주의 어머니의 죽음’ 과를 결부시켜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곤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씨 고운 여우입니다. 곤의 가슴은 뉘우침으로 팍 찹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장난’을 그만두고 효주를 위해서 산에 들어가 ‘밤’이나 ‘송이버섯’을 따 와서는 몰래 효주의 집에 두고 옵니다. 몇날 며칠로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밤’이나 ‘송이버섯’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곤은 마을사람들에게 ‘장난’만 쳐 왔기 때문에 들키는 날이면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숨어서 ‘밤’이나 ‘송이버섯’을 살짝 두고 옵니다. 물론 효주는 그런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곤은 여우이므로 사람과 같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효주의 말은 알아 듣지마는 자기 쪽에서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감정’을 효주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쪽 마음을 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

어린이들은 ‘곤의 행위’(속죄)에 감동합니다. 어쩌면 이토록 마음씨가 고울까 하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곤의 기분이 효주에게 전해졌으면 좋을텐데 하고 바라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효주가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곤이 살짝 몰래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효주는 ‘요전에 뱀장어를 훔쳐 간 곤 여우녀석이 또 장난을 하러 왔구나’고 생각합니다. 독자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주는 모르기 때문에 화승총에 화약을 채워 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탕!하고 쏩니다. 그 장면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곤은 특하고 쓰러졌습니다.

효주는 달려 왔습니다. 집안을 보니 봉당에 밤을 한 곳에 모아다져 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하고 효주는 깜짝 놀라 곤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곤, 너였구나. 늘 밤을 갖다 준것은.’

곤은 축 늘어져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주는 화승총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총끝에선 아직도 푸른 초연이 가늘게 나고 있었습니다.

총 맞은 곤은 결국 죽고 맙니다. 몇번 읽어도 이 장면에 오면 어린이들은 눈에 눈물이 글썽하여 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3

이 작품의 테마는 '속죄'입니다. '속죄하는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기묘한 실천도 생겨 났습니다.

지난날에 이 작품은 도덕교재로 사용된 일이 있습니다. 도덕교육에서는 놀랍게도 '장난의 도가 지나치면 목숨도 잃게 된다' '장난을 치면 안된다'라고 지도되고 있었습니다. 선·악의 관점에서만 봐나가면 이처럼 얇은 해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본보기입니다. 이래서야 문학으로서 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인 '곤'조차도 '그 해석은 틀렸어요'라고 말할 것이 틀림 없습니다.

일본의 문학교육에서는 아직 이와같은 도덕적인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의 하나입니다.

4. 문학의 수업 2 — '물음'에 의하여 깊게 한다

1

일본의 문학수업에서는 '물음'(발문 發問)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의해서 어린이들의 생각(사고방식)을 끌어낸다는 생각입니다. '자국을 감춘 눈'의 실천에 있어서도 교사가 제시하는 '물음'은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는 '다져(놓은)' '끄덕였습니다' '푸른 초연' 등의 표현에 대하여 '물음'을 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끄덕였습니다'를 문제 삼아 보겠습니다.

'곤은 축 늘어져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곤은 죽기 전에 효주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인'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문제입니다. 곤은 무

엇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인' 것이겠습니까?

2

나는 이 장면의 수업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실천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는 점을 보아 곤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시켜 본다는 수업입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상상들을 하였습니다. 곤은 그 후 병원으로 메여 들어갔다. 중상이었으나 목숨은 건졌다. 얼마 지나서 효주가 꽃다발을 들고 위문하러 온다. 그리고는 들어서 손을 붙잡고 화해한다는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실천입니다마는 나는 이와 같은 실천에 반대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곤의 죽음에 의해서 '비극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에 대하여 '곤의 죽음은 슬프다' 그렇지만 '죽음에 임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어 좋았다'라는 감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이는 '서로 이해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해석에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물음'(발문)에 의해서 이 작품이 지닌 비극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게 시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A 곤과 효주는 정말 서로 이해하게 되었을까?
- B 이 결말은 곤만의 비극일까?
- C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느 쪽 물음도 인간교육으로서의 '물음'입니다.

A ...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있습니다마는 들이는 정말로 이해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효주는 '밤'을 가져다 준 것이 곤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곤의 '속죄의 마음'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A의 물음은 그런 것을 깨닫게끔하는 물음입니다.

B ... 이 결말은 죽고 마는 곤의 비극뿐만 아니라 남은 효주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효주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B의 물음은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는 물음입니다.

C ... '곤 여우'의 세계는 곤의 일방적인 '속죄의 마음'에 의해서 진전합니다. 그리고 곤의 죽음으로 들이는 결국에는 '서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

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곤의 죽음에 의해서 슬픔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의 어려움과 교류의 멋들어짐을 동시에 실감(문학적 체험)하게 됩니다. C의 물음에 의하여 그와 같은 비극의 짜임(구조)을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3

이러한 물음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내가 '곤의 처지' '효주의 처지'가 되어 생각한다는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남의 처지를 상상하는 것으로 남에 대한 '생각(사려)'을 깊게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문학교육은 인간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는 산수나 이과처럼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나는 문학교육을 물음에 의해서 어린이들의 '풍부한 의미부여(뜻있게 하는 일)'를 도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교육은 문학의 세계에서 등장인물의 삶(생활태도)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소중한 '물음'을 발견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와 같은 중요한 표현(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문학교육은 훌륭한 '언어의 교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5. 일본의 문학교육의 과제 1— '공생(共生)'을 찾아서

끝으로 일본의 문학교육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앞서 소개한 가네꼬 미수주(金子みず)의 시를 문제 삼아 봅니다. 다음의 시는 현재 일본의 문학교육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시입니다.

나와 작은 새와 방울과
가네꼬 미수주

내가 양팔을 펴도
하늘을 조금도 날 수 없으나

날 수 있는 작은 새는
나처럼 땅 위를 빨리 달리지 못한다.

나는 몸을 흔들어도
고운 소리가 나지 않지마는
저 울리는 방울은
나처럼 많은 노래는 모른다오.

방울과 작은 새와 그리고 나
모두 다르지만 모두 좋아.

이러한 작품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작은 새의 장점을 인정한다. 동시에 지면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나'의 장점도 인정한다. 고운 소리 울리는 방울의 장점도 인정한다. 동시에 많은 노래를 알고 있는 '나'의 장점도 인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이즈가 멋집니다. '방울과 작은 새와 그리고 나/모두 다르지만 모두 좋아'. 굉장한 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좋아'라는 생각이야말로 앞으로의 일본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첫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교육은 지금 '이지메' 문제 등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모두 다르지만 모두 좋아'라는 서로가 남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이 바로 문학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나는 '공생(共生)의 문학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문학교육이 이룩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생(共生)'이라는 테마를 가진 泐문학교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년에 미야자와 겐지(宮 賢治)의 문학에 주목이 쏠려 있습니다. 미야자와 겐지의 문학은 현대인의 잃어버린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세계를 그린 문학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 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생'을 테마로 한 문학의 발굴과 그 실천연구는 이제부터의 문학교육의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6. 일본의 문학교육의 과제 2 — '살아가는 힘' 을 기른다

현재 일본의 문학교육에는 가지각색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문학교육에서 언어 기술을 가르친다는 주장, 문학교육에서 읽기의 기술을 가르친다는 주장, 어린이라는 독자를 중시하자는 독자론의 주장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문학교육의 역할은 문학의 세계의 인물상(人物像)을 통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인간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일본의 문학교육은 어린이들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문부성)는 21세기의 교육을 전망하여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학교육에서 기르는 '살아가는 힘'이란 건전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본의 문학교육은 아직 이 과제를 실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린이들의 아이덴티티의 확립(개체의 자립)을 향하여 일본의 문학교육은 이제 겨우 그 들머리에 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교육의 연구자로서 나는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상 일본의 문학교육의 현상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기회로 한·일의 문학교육 연구에 새로운 교류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본학회에 초빙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약 력

아다찌 에쯔오(ADACHI ETSUO)

1947년 돗토리현(島取縣) 출생. 히로시마대학 대학원 수료. 오사카 교육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시마네대학 교수. 교육학박사.

[저서]

〈현대일본문학의 기수들〉(1975)

〈현대시의 수업〉(1978)

〈사이고(西郷) 문예학의 성립과 전개〉(1982)

〈새로운 시교육의 이론〉(1983, 전국 대학국어교육학회상을 받음)

〈현대 소년시론〉(1987) 〈연구·문예연(文藝研)의 수업〉(1993).

어문학 교육 제18집

1996년 11월 1일 인쇄

1996년 11월 5일 발행

펴낸곳 : 한국어문교육학회

지은이 : 이 해 응 외

박은이 : 황 성 일

박은곳 : 도서출판 地平

TEL. 807-0600~2

FAX. 807-3667

이 책은 1996년도 부산광역시 문예활동 지원금을 받아 발간됨.